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103/200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1-수특 고전산문 07 1~3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서기공은 음악에 조예가 깊고 손님을 좋아해서 손님이 오면 술을 내오고 거문고와 피리를 연주하게 해서 흥을 돋우었다.

나는 기공을 따라 놀며 즐기다가 한번은 해금을 하나 얻어 가지고 가서 손을 놀려 벌레 소리와 새소리를 내 보았다. 기공이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말했다.

“쌀이나 한 움큼 퍼 주어야겠군. 이진 거지 깡깡이 소리지 뭐야.” / “무슨 말씀이신지요?”

[A] “십하기도 하지, 자네가 이리도 음악을 모르다니! 우리나라 음악에는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의 두 가지가 있네. 아악이라는 건 옛날의 음악이요, 속악이라는 건 후대의 음악일세. 사직과 문묘에서는 아악을 쓰네. 종묘에는 속악을 섞어 쓰는데, 이게 바로 장악원의 속악이지. 군대에서 쓰는 속악은 ‘제악’이라고 하네. 사기를 고취하기도 하고 개선가로 연주되기도 하는데, 화평하거나 미묘한 소리까지 모두 갖추었기에 놀이며 잔치에서도 이 음악을 쓰지. 그리하여 철의 거문고며 안의 짓대며 동의 장구며 북의 피리를 일컫게 되었고, 유우춘과 호궁기는 모두 해금으로 유명하네.

자네가 해금을 좋아한다면 저 사람들에게 가서 배울 일이 지, 어찌자고 이런 비렁뱅이 깡깡이 소리를 배웠는가? 지금 저 비렁뱅이들은 남의 집 문에 기대어 해금을 쳐서 할아비며 할미며 갓난아기며 가족이며 답이나 오리며 온갖 벌레 소리를 내고 있다가 그 집에서 쌀을 준 뒤에야 떠나지. 자네의 해금 소리가 바로 그렇군.”

나는 기공의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서 해금을 자루에 넣고는 몇 달 동안이나 그대로 내팽개쳐 두고 꺼내 보지 않았다.

어느 날 일가 사람인 금대 거사가 찾아왔다. 거사는 작고한 현감 유운경의 아들이다. 유운경은 젊어서 험객 기질이 있었고 말타기와 활쏘기를 좋아했으며, 영조 무신년(1728년)에 충청도에서 일어난 반란을 토벌해 큰 공을 세웠다. 유운경은 이 장군 맥 여종을 좋아하여 아들 둘을 낳았다. 나는 그 일을 떠올리고 조용히 거사에게 물었다. / “두 아우는 지금 모두 어디 있습니까?”

“어허! 모두 여기 있지. 내 친구 중에 변방 고을 수령이 된 자가 있거든. 내가 밭을 사매고 2천 리 길을 걸어서 그 친구에게 돈 5백 냥을 얻어 왔지. 그 돈을 가지고 이 장군 맥에 가서 두 아우의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지금 큰 아우는 남대문 밖에서 망건을 팔고 있지. 작은 아우는 용호영에 소속되어 있는데 해금을 잘 쳐서 요사이 ‘유우춘의 해금’이라고 들 하는 유우춘이 바로 그일세.”

나는 비로소 기공의 말을 기억해 내며 깜짝 놀랐다. 이름난 가문의 후예로서 군대의 병졸 노릇이나 하고 있다는 게 우선 서글웠지만, 한 가지 재주로 이름이 나서 생계를 꾸려 가고 있다는 게 반갑기도 했다.

(중략)

이때 나는 자루에 넣어 가지고 갔던 해금을 보여 주며 말했다. “이 해금은 어떤가? 전에 나는 자네가 연주하는 해금에 뜻을 두어 벌레 소리며 새소리를 내 보려 한 적이 있었지. 그랬더니 남이 듣고는 거지 깡깡이 소리라고 해 몹시 창피했었네. 어떻게 하면 거지 깡깡이 소리가 아니게 할 수 있나?” 우춘은 손뼉을 치며 꺾꺾 웃더니 말했다.

[B] “물정 모르는 말씀이로군요! 모기가 앵앵거리는 소리며 파리가 잉잉거리는 소리며 온갖 기술자들이 똑딱거리는 소리며 선비가 개골개골 글 읽는 소리며 천하의 이 모든 소리는 먹을 것을 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해금과 거지의 해금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또 제가 해금을 배운 건 노모가 계시기 때문이니, 재주가 묘하지 않다면 무슨 수로 노모를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저의 해금 재주는 거지의 해금 연주가 묘하지 않은 듯하면서도 묘한 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선 제 해금과 비렁뱅이의 해금은 그 재료로 보자면 똑같습니다. 해금은 활대에 말총을 매고 말총에 송진을 발라 꺼끌꺼끌하게 합니다. 현악기도 아니요 관악기도 아니며, 손으로 타는 현악기 소리인듯도 하고, 입으로 부는 관악기 소리인 듯도 하지요.

저는 해금을 배우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재주를 이루었는데, 그러는 동안 다섯 손가락에 모두 굳은살이 박였습니다. 그런데 기예는 더욱 높아졌으나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으니, 사람들이 갈수록 내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거지는 못 쓰는 해금 하나를 주워다가 몇 달을 다루고 나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듭니다. 연주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 뒤를 따라다니는 자가 수십 명은 되지요. 거지는 그렇게 해서 하루에 쌀 한 말은 얻고 저금통에 돈까지 거둬 갑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음악을 이해하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우춘의 해금’이라 하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압니다. 그러나 그 이름을 듣고 알 뿐이지 그 해금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자야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종실이나 대신들이 밤에 악공을 부르면 악공들은 저마다 자기 악기를 들고 종종걸음으로 마루에 오릅니다. 불빛이 휘황한 가운데 시종은 이리 말하지요.

‘잘하면 상이 있을 것이다.’ / 그러면 악공들은 몸을 굽히며 말합니다. / ‘예이.’

이에 현악기가 관악기에 애써 맞추려 하지 않고, 관악기가 현악기에 애써 맞추려 하지 않아도, 소리의 장단과 빠르기가 은은하게 하나로 어우러지지요. 나직이 읊조리는 소리나 음식을 씹는 소리가 문밖에 들리지 않아 흘끗 걸눈질해 보면 듣던 이는 망연히 책상에 기대 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지개를 켜며 말하지요. / ‘그만해라!’

악공들은 ‘예이.’ 하고 내려옵니다. 돌아와 생각해 보면 내가 연주하고 내가 듣다 온 것일 뿐입니다.

귀한 집 자제며 풍류 있는 유명한 선비들이 맑은 이야기를 나누는 고상한 모임에도 해금을 안고 가 자리한 적이 있습니

다. 어떤 이는 글을 평론하고 어떤 이는 과거에 급제한 인물들을 비교합니다. 술에 흐드러지게 취하고 등불이 다 타들어 갈 무렵 뜻은 높으나 글이 잘 지어지지 않아 괴로운 모습을 하다가 붓을 날려 종이에다 글을 써 맵니다. 그러다 누군가가 문득 저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너는 내가 가진 해금의 시초를 아느냐?’ / 그러면 저는 옆드려 대답합니다. / ‘모르웁니다.’

‘옛날에 혜강(嵒康)이 만들었느니라.’ / 그러면 또 옆드려 대답하지요.

‘예이, 알겠습니다.’ / 그러면 또 누군가가 웃으며 말합니다.

‘해(奚) 부족의 금(琴)이란 뜻이지, 혜강의 혜(嵒)가 아니야.’

그리하여 좌중의 사람들이 분분히 다투지만, 그게 내 해금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중략)

우리 무리 중에 궁기라는 이가 있습니다. 한가로운 날 만나서 두 사람이 각자 자루에서 해금을 꺼내 켵니다. 눈길은 푸른 하늘에 던져두고 마음은 손가락 끝에 두어, 연주에 한 치의 실수라도 있으면 꺾꺾 웃으며 돈 한 푼을 상대방에게 줍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이 돈을 주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지요.

‘내 해금을 이해하는 사람은 궁기뿐이야.’

그러나 궁기가 제 해금을 이해하는 건 제 자신이 제 해금을 이해하는 것만큼 정밀하진 않습니다.

지금 그대는 공을 이루기 쉽고 남들이 알아주는 일을 버리고, 공을 이루기 어렵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배우려 하니,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춘은 모친이 세상을 뜬 뒤로 자기 일을 버렸고, 그 뒤로는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다. 우춘은 아마 효자로서 악공의 무리 중에 숨어 지내던 사람일 것이다. 우춘이 말한 ‘기예가 높아질 수록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어찌 해금에만 해당되는 말이겠는가.

- 유득공, 「유우춘전(柳遇春傳)」-

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傳)’은 실존했던 인물과 그 인물과 관련된 실재한 사건을 내용으로, 작가가 교훈적 측면에서 후대에 남기려는 의도로 기록된 양식이다. 전은 일반적으로 앞부분에서 전하고자 하는 인물의 행적 및 사건을 설명한 후 평결부에서는 그 인물에 대한 논평을 제시하는 구성을 취한다. 조선 시대후기에는 전 양식을 차용하면서 인과적 사건 전개와 인물의 갈등과 개성에 초점을 맞춘 소설들이 활발하게 창작되었는데, 이러한 소설을 ‘전계 소설(傳係小說)’이라고 한다. 「유우춘전」에서는 이러한 전계 소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진정한 예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현실을 비판하는 유우춘의 말에서 작가의 교훈적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유우춘이 지닌 예술가로서의 면모와 고뇌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물의 개성에 초점을 맞추는 전계 소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유우춘에 대한 행적을 제시한 후 그의 삶에 대한 평가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명과 논평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실존 인물인 ‘유우춘’의 행적을 ‘서기공’ 및 ‘유운경’ 등의 인물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존 인물과 그 인물과 관련된 실재 사건을 전달하는 전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유우춘과 관련된 여러 인물을 소개한 후 그들의 행적과 관련지어 유우춘의 갈등 해소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과적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전계 소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2.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우리나라 음악을 분류하고 각각의 특징을 언급한 후 ‘나의 음악이 본받아야 할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는 비렁뱅이의 음악과 ‘나의 음악이 차이가 없다고 말하며 ‘나’가 제대로 된 음악을 모르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 ③ [B]는 이 세상의 존재들이 소리를 내는 목적을 언급한 후 비렁뱅이의 음악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우춘’ 자신의 해금과 비렁뱅이의 해금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나의 음악이 비렁뱅이의 음악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비렁뱅이들이 해금을 연주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비렁뱅이의 음악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3. <보기>의 ‘갑’, ‘을’의 입장에서 윗글의 음악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갑: 서화(書畵)는 심화(心畵), 즉 물(物)을 빌려 내 마음을 그리는 것인즉 높은 기예를 바탕으로 드높은 정신을 표현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물(物)을 충실히 재현하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리의 화공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들의 그림이 나중에는 방바닥 뚫어진 것을 매우게 되는 것은 그림에 담긴 뜻이 얕고 천하기 때문이다. 비록 서화를 이해하는 이가 많더라도, 드높은 정신의 경지가 결들어 있지 않으면 다만 검은 것은 먹이요, 흰 것은 종이일 뿐이다.

을: 정소남은 난의 노근(露根)을 드러내어 망송(亡宋)의 한을 그렸고, 조맹부는 휘절(毀節)하여 원(元)에 출사(出仕)했지만, 정소남의 난초만 홀로 향기롭고 조맹부의 송설체(松雪體)가 비천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서화는 높은 기예를 바탕으로 물화(物畵), 즉 대상의 정(情)과 의(意)를 드러내어 대상이 지닌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한다. 서화가 한낱 선비의 강개(慷慨)를 의탁하는 수단으로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덧없는 일이겠는가.

- ① 갑: 화공이 그린 그림과 마찬가지로 비렁뱅이의 음악은 드높은 마음만 드러낼 뿐, 높은 기예를 바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 ② 갑: 유우춘의 해금 연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그 연주에 높은 기예를 바탕으로 한 드높은 정신의 경지가 담겨 있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 ③ 을: 유우춘의 해금 연주는 궁기에게 돈을 지불할 정도로 기예가 부족하여 그 연주를 궁기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 ④ 을: 종실과 대신들이 듣는 악공들의 연주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음악에 담긴 악공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 ⑤ 을: 비렁뱅이의 음악은 정소남의 그림과 조맹부의 글씨처럼 높은 기예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